

1월에 범행 공모...중간고사 때도 7과목 빼돌렸다

수사로 재구성한 시험지 해킹 사건 전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답안지를 훔친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똑같은 수법으로 시험지를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은 시험지·답안지 유출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고교 2학년생 A·B군이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하는 과정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29일 치러진 중간고사 때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올해 1월께에 최초로 범행을 공모했으며, 중간·기말고사를 합쳐 최소 4차례 이상 교무실에 잠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컴퓨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B군이 수법을 고안했을 것으로 경찰은

기말고사 4과목 아닌 9과목 유출

4차례 이상 교무실 잠입한 듯

4층 이전 후 경비시스템도 먹통

악성코드 설치 노트북 당 20분

최소 3시간 이상 교무실 머물러

컨닝 페이퍼 찢어 버리다 들통

보고 있다.

이들은 중간고사를 앞둔 지난 4월께 과목별 교사 노트북을 찾아 본관 2층 본 교무실, 4층 2학년 교무실 등 2곳을 침입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말고사 직전인 6월 말에는 별관 2층 진로상담교무실에도 추가로 잠입했다고 털어냈다.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밤 10시 이후 택시를 타고 학교를 찾아가 뒤, 건물 외벽 배수 파이프를 기어오르고 난간 구조물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2·4층 교무실 창문을 넘었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보안 경보가 울리거나 제지당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근무 경비원도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설 보안업체의 경비 시스템은 지난 2월 본관 2층 교무실의 일부를 4층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한 이후 먹통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A·B군은 교무실을 들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교사 노트북들에 접근해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이들은 시험지를 만드는 장면을 캡처해 숨겨진 폴더에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중간고사 때는 7과목, 기말고사 때는 9과목의 시험지·답안지를 유출

했다.

악성코드 설치 과정은 한 노트북 당 20분씩 걸리는 것을 감안할때, 이들이 최소 3시간 이상 교무실에 머물렀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3-4일후 다시 교무실을 찾아온 이들은 시험 답안이 기록된 사진파일을 USB에 저장한 뒤, 악성코드와 남은 사진을 삭제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기간이 되자 A군은 컨닝 페이퍼를 시험장에 몰래 들고와 시험을 치렀고, 시험이 끝나면 컨닝 페이퍼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이때 시험지 귀퉁이를 같이 찢어 버리고, "평소 답안을 귀퉁이에 적는 습관이 있다"고 변명하는 등 '연막 작전'도 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을 했던 교사들은 A군이 컨닝 페이퍼를 반입하는 걸 발견하지 못했으며, B군은 답을 전부 외운 채 시험을 치러 증거를 남기

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교사들도 이들의 갑작스런 성적 상승에 대해 의문을 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A·B군이 전체 답안을 캐낸 경우는 지구과학·생명과학·화학·한국사·수학2 등 5과목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답안을 일부밖에 못 캐낸 과목에서는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A군이 컨닝 페이퍼를 버리는 장면을 놓치지 않은 반 친구들의 '눈썰미'에 달미를 잡았다. 휴지통을 뒤져 찢어진 컨닝 페이퍼를 퍼즐 맞추듯 복원해내면서 답안지 유출의 단서를 잡은 것이다.

경찰은 A·B군 외 추가 공범이 있는지, 1학년 때도 시험지·답안지를 유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바이오스 비번 일부러 3차례 틀려...오류코드 뜨면 복사해 해독

노트북 '2중 비번' 어떻게 뚫었나

최근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답안지 유출 사건에서 교사들은 출제용 노트북에 '이중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으나, 학생들의 해킹 공격에 무력하게 뚫린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노트북에는 '바이오스 비밀번호', '윈도우 비밀번호' 등 2개 보안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바이오스는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구동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바이오스 비밀번호를 일부러 3차례 틀리면서 오류 메시지를 띄운 다음, 오류 메시지에 적힌 오류 코드를 복사해 코드를 해독해주는 웹 사이트에 올려적었다. 그러자 노트북의 바이오스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나왔다고 한다.

윈도우는 관리자 계정 생성 접속

인터넷 통해 해킹 방법 익혀

영어만 유출 안된 이유 등 조사

학생들은 윈도우 비밀번호의 경우 아예 '회피'하는 방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윈도우 계정에 로그인하기 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미리 담아 온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리자 계정'을 생성했다. 해당 계정으로 접속하자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같은 방법을 익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바이오스 비밀번호 풀기', '윈도우 계정 해킹' 등 내용은 인터넷 블로그 등지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학생들이 이중 비밀번호를 뚫고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동안 노트북에 설치돼 있던 보안 프로그램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수학1·수학2·독서·생명과학·한문·일본어·화학·지구과학·한국사 등 9개 과목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영어 과목은 유일하게 해킹 공격을 당하지 않았으며, 유출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킹에 동참했던 학생 중 1명은 7월 11-13일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영어 성적이 40점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어 과목만 유출되지 않은 이유와 보안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저자세 외교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제동원 배상 저자세 외교 비난...“사죄·배상만이 문제 해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가 근래 악화된 것은 일본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이를 자국 정치에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과 자산 압류 결정 직후 일본 정부가 자행한 2019년 7월 보복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 것도 아니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상태"라며 "전범기업은 사죄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대화마저도 뿌리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법원의 전범기업 자산 매각 결정(현금화) 전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하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단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하며 내놓은 발언 등을 두고는 '대일 저자세 외교'라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일본 외상,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양금덕(94)·김성주(94)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로 인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상표권 등) 매각 여부를 가를 대법원 결정 전 어떻게든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우리 측의 해법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단체는 "박 장관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참사"라며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커녕 피고(전범) 기업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국 외교수장으로서 할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68개 고교 시험 보안관리 실태 점검

광주시교육청 대책 발표

노트북 캐비닛 보관하고 잠귀야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기말·중간고사 문답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 전체 고교 68곳에 대한 시험 보안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학생평가(시험) 보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장학사로 구성된 학생평가 전담반을 가동해 일선 고교를 대상으로 시험 출제

·인쇄·시행·채점 등 단계별 보안관리를 점검한다.

특정 고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지를 빼돌렸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노트북, 컴퓨터 등 디지털 보안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학생평가 시 출제부터 채점 단계까지 각 단계별 보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시 교육청은 '시험 보안관리' 대책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사들은 퇴근할 때 교무실 책상에 노트북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캐비닛에 보관하고 노트북이 보관된 캐비닛은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

교무실 출입구와 창문도 퇴근할 때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교무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교사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사설 경비업체 방법 설치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시험 보안관리 추가 대책을 공문으로 작성해 광주 시내 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시 교육청은 또한 이번 시험 부정 사건과 관련해 고등학생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가 재직하고 있는지(상피제 적용), 교직원의 자녀, 친지 등이 학교에 재학할 경우 교사들을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 1.新安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